

여야 역사전쟁에 등 터지는 '예산 심의'

예결위 전체회의 야당 불참에 무산...소위 구성도 난항

여 "단독 심사" 으름장...지역 정치권 "투트랙 전략 필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강력 반발,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파행이 계속될 경우, 전체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분회의에 자동 부인된다.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예결위는 4일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약 3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날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부별 심사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인 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졸속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뒤늦게 예결특위에 참여하더라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면서 예결특위는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한다. 예결위는 당초 약 열흘 동안 강제 심사를 벌인 뒤 나머지 기간을 증액 심사에 할애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증액 심사는 각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과 밀접하게 맞물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예산안 심사 진행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4일을 예결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속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차질을 빚으면 위원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예결위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늦어도 5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예결위 의사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소위'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예결소위에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각 1명씩, 2명을 배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강경 투쟁으로 정부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던 점을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간과하면 안 된다"며 "교과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분리해 두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사퇴 지역위원장에 배재정

부산 사상구 興은 손수조...내년 총선 여성대결 구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지역위원장직에서 4일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뜻을 밝히고 사퇴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초선 배재정 의원을 사상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날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지역위원회를 사고 지역위원회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표가 "사상에서 10·28 재선거가 진행중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안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재선거가 끝난 뒤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달리 토론을 벌이지 않았다"며 "문 대표가 '지난번 진행키로 한 것을 의결하자'고 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려 안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당 전체의 전략을 고려해 다른 지역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 출마를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문 대표에게 "부산에서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부산 출마를 촉구했다. 이에 문 대표는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대와 대결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상태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우리 지역구가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직무 대행자를 선임했다"면서 "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것과 다음 총선 공천하고는 관련이 없다. 경선에 나설 분들은 누구나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고 말했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배 의원은 "문 대표 당과 민심이 원하는 곳에서 총선에 출마하러라"고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겼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사상구에 사무실을 내고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해 왔다. 새누리당 역시 사상구에 여성인 손수조 당협위원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송숙희 사상구정장까지 총선 경선경쟁에 뛰어들 태세여서 이곳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韓-佛 첨단기술 협력강화

정상회담 11개 행동계획 채택

한국과 프랑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을하기로 했다.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고위급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첨단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생명·보건 과학, 혁신적인 교통수단, 나노기술, 신소재, 제약, 실버 경제,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한불 신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도 신성장 산업 간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인공위성의 공동연구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동계획에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국가에서의 사업 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두 정상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양국의 직업계 고교, 대학 및 기업들과 함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프랑스의 요리·명품·호텔 등의 분야와 한국의 ICT,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청년 직업훈련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심집중 '孫'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공항을 떠나고 있다. 손 전 상임고문은 개인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엠 대학에서 리더십 특강을 가졌다. /연합뉴스

孫, 국정화엔 쓴소리...역할론엔 "상관없는 얘기"

중앙에서 귀국...하산 질문에 "산이 나가라 하면" 여운

정계를 은퇴하고 강진에 집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손학규 역할론'에 대해 "상관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정계은퇴 후 첫 외국 강연을 마치고 귀국한 손 전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전망이 좋지 않다"는 질문에는 "그런 (정치적)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고 답변을 피했다.

손 전 고문은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한사코 꺼리던 종전 태도와 달리 이날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소신껏 답변했다.

손 전 고문은 10·28 재보선 결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질문에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성세대는 그런 환경을 담보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는 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필할 수 있게 맡겨줘야 한다. 국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진에 언제까지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진이 좋으니까. 강진의 산이 나에게 '아유, 넌 더 이상 지겨워서 못 있겠다. 나가버려라' 하면..."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구서 몽친 안철수-박영선-김부겸

강연회 축하인사 건네고 북콘서트 초대손님 출연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 50대 정치인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 4일 북콘서트와 강연회 등을 통해 일제히 대구로 출동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와 영남일보 빌딩에서 대학생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각각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박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의원이 들러 축하 인사를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북 콘서트를 열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 때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의원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다.

안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대구시당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박 전 원내대표도 성명 발표자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세 트리오의 대구 출동이 주목을 끄는 것은 세 사람 모두 중도성향 50대 정치인의 간판격인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류인 문재인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문 대표와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고, 박 전 원내대표는 '극우도 극좌도 아닌 새로운 동력'을 앞세운 '새물결론', 당 안팎의 아련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전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진보라는 구태를 뛰어넘은 '새로운 세력'을 역설하며 문 대표에게 당내 제 정파와 탈당파까지 참여하는 '만민공동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혁명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 | | |
|------------------|-------------|--------|
|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초등학생) | 미취학어린이 |
| 월요일 12,500원 | 8,500원 | 5,000원 |
| 화요일, 목요일 14,500원 | 9,000원 | 5,500원 |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